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Asan Medical Center Intensive Care Unit

아낌없이 주는 나무

ICU NEWSLETTER

발행인 임채만 TEL 02-3010-4700 FAX 02-3010-4709

Vol. 51 October 2017

간호사 칼럼 | 토론토에서 한 달 살아남기 (캐나다 토론토 생활수기)

조희주 간호사 (SICU2)

지난 9월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정확히 한달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 머물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경험담, 여행 팁을 알리고자 짧게 글을 쓴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떤 나라든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사실 나도 캐나다에 가기 전까지는 수도가 벤쿠버라 알고 있었으며 캐나다 국민 모두가 영어와 불어에 능통할 거라 생각했다. 이렇듯 출국 전 병원 일과 연수 준비에 바빠 짧은 밑천으로 도착한 캐나다 토론토는 내게 색다른 경험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1. 명소 소개

1) 온타리오 미술관: 내가 첫째로 이 곳을 꼽은 이유는 평소에 미술을 감상하는 고상한 취미가 있어서는 아니다. 연수를 시작하며 현지에서 부딪친 속사포 같은 영어는 한국에서 공부하던 교과서와는 달랐다. 결국엔 연수 3일째 되던 날 스트레스가 폭발했던 나는 늦은 오후 온타리오 미술관을 찾았다. 숙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던 미술관은 때마침 free day였고, 생각 없이 전시된 미술을 관람하며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져 있었다. 그래서 난 매주 수요일 free day마다 병원일이 끝나면 미술관을 찾았고, 매주 방문하는 날 알아본 봉사자 할머니는 내가 갈 때 마다 그림을 정해 느낌을 표현해 보라고 하시며 친절한 설명도 덧붙여 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술관 3층 계단 입구에서 보는 토론토의 야경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2) 퀸 스트릿: 여긴 거의 2-3일에 한 번씩은 갔던 곳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토론토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니크한 거리이기도 하지만 여행책에 나오는 맛집 대부분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제일 좋았던 것은 항상 뛰어난 실력의 버스킹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신 시청과 구 시청: 현대식의 신 시청과 르네상스 시대에 지었을 것만 같은 구 시청이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묘하게 어울린다. 신 시청은 토론토를 상징하는 형광판과 넓은 광장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가끔 유명한 가수의 공연도 무료로 볼 수 있다. 나는 가끔 외로울 때마다 광장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다.

4) 토론토 아일랜드: 토론토 시민도 사랑하는 이 섬은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큰 면적으로 토론토 다운타운 끝자락에 바다인 줄 알았던 온타리오 호를 배를 타고 15분이면 도착하는 유원지 같은 곳이다. 단 한 번 방문했지만 여유로운 그들의 모습과 가족들의 행복한 풍경을 보며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돌아오는 길에 배 안에서 보는 토론토 시내의 일몰과 야경이 끝내주게 아름답다. 섬 내엔 누드 비치도 있다!!

2. 내가 느낀 토론토, 그리고 여행 팁

1) 토론토 사람들: 흥부자에 정말 친절하다. 병원 직원들은 물론이고 슈퍼마켓 계산원까지 일본인의 격식 있는 정형화된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는 정감 있는 친절이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심지어 개인주의적일 꺼라는 나의 편견을 깨뜨리고 오지랖도 무척 넓은데 길을 가다 길거리의 흠리스와 한참 동안 쭈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종종 보았다. 그리고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 영어의 억양이 다양해서 그럴까 부족한 내 영어를 찰떡같이 알아 들었다. 나는 북미 사람은 다 친절한가 생각했는데 귀국 전 들른 뉴욕은 전혀 분위기가 달랐다.

2) 물가: 뉴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비싼 편이다. 그 이유는 물건 자체의 가격보다 계산시에는 지방세와 정부세가 각각 15%, 5%가 붙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제품의 공시된 가격에 20%의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지어 패스트 푸드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15~20%의 팁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3) 날씨: 9월에만 살아봤기 때문에 9월만 얘기하자면 캐나다는 몹시 추워지기 전 인디언 썸머라고 부르는 짧은 기간의 반짝 더위가 있다. 9월이 그 시기인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한낮엔 쨍한 햇살에 타들어 갈 것 같이 덥지만 그늘 안 이나 오후가 되면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 최상의 날씨를 즐기고 온 것 같다. 하지만 진짜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몹시 춥다고 한다.

4) 음식: 다문화 국가답게 전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맛집 몇 군데의 이름을 소개하자면 Burger's Priest(토론토 자체 브랜드 수제버거집. 쉐이크와 육즙 가득한 버거), 반미 보이즈(베트남 샌드위치인 반미도 유명하지만 김치 치즈 포테이토 후라이드가 정말 유명함), 샐러드 킹(태국 음식점. 메뉴판에도 없는 이슬라믹 시푸드 누들 강력 추천), 치폴레(타코가 유명한 맥시칸 음식점. 유학생들 사이에선 소울푸드로 통한다고 함), 팀 홀튼(캐나다 자체 커피 브랜드. 아이스 캡은 더운 날 매일 마시던 음료였는데 처음에는 뇌가 뻥 뚫릴 것 같은 단맛에 당황했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음)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ICU News

MICU1
- 중환자간호 상급과정 (10/12~13) : 이지호, 이주마, 하나름, 배수정
- 비채캠프 (10/26~27) : 오해연, 노혜옥

NRICU
- 부서이동 (10/16) : 안서영 (NRICU → AGS 평가실)
- 중환자간호 상급과정 (10/12~13) : 문지혁, 김나람

ACU
- 부서 Conference (10/13)
- 돈암보건대, 동주대 간호학생 견학 (10/13, 20)
- 중환자간호 상급과정 (10/12~13) : 방수연

RT
- ACNS Conference (10/25) : 서희정, 서가진, 김은영
- 아산기계환기워크샵 (10/28) : 서희정, 서가진, 김은영
- CRM CPR (10/30) : 서희정, 김은영
- Conference (10/31) : 김은영

MICU2
- 해외연수: 박샘 (10/9~20 MGH)
- 테마여행 (10/18) : 오한비, 여소영
- 중환자간호 상급과정 (10/12~13) : 박민수
- 사물레이션교육 강사활동 (10/18) : 장민경

NICU1
- 유럽신생아학회 참석 (10/30~11/4) : 강희영
- 네팔 의료봉사 (10/14~22) : 정은이
- 대한심장학회추계학술대회 참석 (10/13~14) : 김정아, 김다슬, 안경혜

SICU1
- Queen's Medical Center 해외연수 (10/16~28) : 정윤주 CNS
- 이화여대 간호학생 임상실습 (9/26~10/27)
- 감동한마음 봉사 (10/17) : 문경은, 이명숙

PICU1
- Care Round (9/21) : ccTGA, VSD, PS (박경희)
- 소아기계환기 워크샵 (9/24) : 4명
- 체험차간호사 PCS 교육 (9/26)
- 노후 Infusion Pump 10대 일괄교체 (9/27)

SICU2
- 베트남 짜라이병원 연수생 2명 4주 연수
- 출산 : 남보라
- 육아휴직 : 엄기주

CCU
- 부서이동 (10/1) : 조영은 (SICU2 → CCU)
- 독립 : 전은향

MAT
- 제4차 심폐소생술 위원회 (10/17) : 이진미, 신유정
- 제25차 아산기계환기워크샵 (10/28) : 이진미, 김타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MICU1/ACU/동관ICU	서가진	886241	
MICU2/SICU1·2	김은영	886242	T.6244
일반병동	서희정	886244	

(앞 페이지에 이어서)

5) 숙소: 토론토에 간다면 에어 비앤비에서 살아볼 것을 추천한다. 나도 한 달간 아파트 전체를 빌려 살았는데 대도시답게 기본적인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깨끗하다. 내가 한 달을 머물면서 단순히 객으로만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호텔과 다르게 직접 밥도 해 먹고 청소, 빨래를 하며 '생활'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유년시절을 보낸 대구와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 살아봤던 곳이라 그럴까 토론토를 떠나는 날은 괜히 울적하고 비행기 창에서 멀어지는 CN타워를 보며 잠시 울컥하기도 했다. 그만큼 나에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캐나다 토론토 여행을 적극 추천한다.

풍납동 서당

소탐대실 小貪大失

작을 소 小, 탐낼 탐 貪, 클 대 大, 잃을 실 失

뜻)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음

예문) 00회사가 제품의 하자를 숨기고 많은 이익을 냈는데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그 회사에 대해 불매 운동이 벌어졌지요. 소탐대실한 것이죠.

생각의 방 & 고객의 소리

※ 이 글은 올 상반기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가 쓴 패혈증 수기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갑다. 춥다. 여기가 어딜까? 눈에 설다. 검사 받으러 간다며 앰블런스를 타고 왔는데. 대구인가? 진주인가? 아침이라 간호사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왜 나 혼자 여기에 누워 있을까. 내 몸에 부착된 이것들은 다 무엇일까. 너무 많아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아산병원으로 온 지 30여일 만에 처음 눈을 뜨고 보여진 중환자실 분위기며 떠오르는 생각들이 생소하기만 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상황 판단을 해볼 쯤에 사람들의 입 모양을 보고 내 상태를 짐작하고 알게 되었다.

앞선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다. 아, 난 중환자실에 있구나. 드디어 나의 현실이 인식이 되었다. 오른쪽 에크모 관이 몹시 불편하다. 무겁고 숨차다. 거울보기가 두렵다.

지금 나는 에크모와 산소호흡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시간과 싸우는 것인가. 다들 좋아지고 있다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지만 왠지 더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몸에 붙은 것 떼어내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고 글씨를 써서 보였지만 돌아오는 건 부모님의 눈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회진 때 선생님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폐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런 며칠 후 드디어 에크모를 제거하는 연습을 하자는 말씀을 하신다. 산소 유량을 6에서 5로 4로 0으로까지 낮추는 과정이었다. 환자마다 고비가 있다지만 나에게도 치료 장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숨차고 헐떡거리며 참아내는 연습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가는 나를 보았을 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졌다.

에크모를 무사히 제거하고 약 1주일간 인공호흡기를 떼는 연습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이것만 해내면 중환자에서 일반환자로 변하여 일반병실로 갈수 있다는 기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버텨냈다.

9월 5일 처음 혼자 숨쉬기로 24시간을 지내고 그 다음에는 48시간까지 할 수 있었다. 9월 6일 병실 신청, 그리고 드디어 9월 7일 감염내과 일반병실로 이동 !

꿈만 같았다. 그냥 너무너무 좋았다.

호흡기내과 교수님, 감염내과 교수님, 내과 선생님들... 중환자실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제가 새 삶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저 같은 중환자들이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직으로 되돌아가면 정말 아픈 환자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활치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책

워킹맘 7년차! 지난여름 마지막 5학기를 끝으로 나는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ICU 간호사로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나에게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다고 한마디씩 전한다. 육아에 일에 학업에...하지만 나는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슈퍼 워킹맘'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나의 인복(人福) 때문이 아닌가 싶다. NSICU 김경란 선생님도 네잎클로버 같은 소중한 사람들 중 한사람이다. 내가 처음 MICU2에 입사했을 때 선배로 있었던 선생님은 대학교 선배이자, 내가 결혼 후에는 동네 이웃이 된 나와는 연결고리가 많은 분이다. 처음 근무하면서 누구나 그렇듯 내 선택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과정 중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고민을 날려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나의 힘들어하는 모습에 먼저 다가와 "힘든 일 있니?"라고 물어봐주는 선생님에게 많은 의지를 했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있지만 가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금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힘을 얻곤 한다. 나의 롤 모델이신 선생님 지금처럼 계속 쭈~욱 함께해 주실 꺼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경란 선생님이 마음으로 전하는 책 '엄마 반성문'은 워킹맘인 이유남 작가가 두 남매를 키우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엮은 책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고개를 흔드느라 목이 아플 지경이다. 특히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노력한다."

이 말에 스스로 반성문을 써보며 내 아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지하고, 칭찬하는 엄마가 되리라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다음으로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픈 동료는 건강 악화로 한동안 휴직 후 지금은 복귀에서 열일하고 있는 많이 아끼는 후배 MICU2 이경아 간호사에게 "경아야~넌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워!"라는 응원과 함께 조유미 저자의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란 책을 전달합니다.

From. 천유경 간호사 (SICU1)

To. 이경아 간호사 (MICU2)

지호씨의 그린 라이트 | '어느 날 갑자기'

이지호 간호사 (MICU1)

날이 하루 아침에 차가워져서 욕실 창문을 단단히 닫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작했다. 새로 바꾼 생강향 바디 워시가 온 몸을 조금 더 개운하게 만들어 주었다.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틀어 놓고 씻는 버릇이 있어 그 날도 노래에 맞춰 콧소리를 흥얼대고 있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타일이 메아리를 탕탕 일어내고 있었다. 샤워를 마쳐갈 무렵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김연우의 '이별택시'였다. 그 때였다.

퐁당.

갑자기 울리는 낯선 소리에 머리를 헹구다 말고 뛰쳐나왔다. 변기의 파란 물 속에 스마트폰이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수건 더미 위에 올려 두었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끄러져 변기로 골인한 것이었다. 그 안에서 김연우의 목소리는 천천히 그리고 먹먹하게 젖어 들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이이이으이으으으'

주저할 틈도 없이 손을 쑥 집어 넣어 꺼내었다. 일단 전원을 꺼야 한다고 어디선가 들었다. 물에 젖은 폰은 손가락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 수건으로 쓱쓱 닦아내고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였다. 노랫소리가 울리던 욕실은 잿빛 탄식으로 가득 찼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업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 소중한 기록들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었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 당혹스러움은 감출 수 없었다.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고들 했다. 수건과 드라이기로 최대한 말렸다. 그리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약간은 얼이 빠지고 화난 상태로 이런저런 준비를 마쳤다. 왜 폰이 미끄러진 것일까. 3년 째 늘 두던 곳이었는데. 고쳐야 할까. 새로 장만해야 할까. 두 달 동안 연속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여윳돈이 없는데 어쩌지. 무엇보다 당장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도, 음악도 없이 출근을 하는 것부터 고역이었다. 심지어 시계도 차지 않고 다닌 지 몇 년 째라 시간도 알 수 없었다. 결국 혼자 급하게 움직이다가 삼십 분 일찍 출근하게 되었다.

그 환자는 내 어머니와 나이가 같았다.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몇 차례 받다가 반짝, 그야말로 반짝 좋아져서 한 달 전엔 등산도 다닐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다 대부분의 중환자실 환자의 코스가 그렇듯 인투베이션을 하고 2주가 넘게 입원 중이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진정제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다. 다들 의식이 온전히 돌아올까 노심초사 불안했었는데 몇 가지 약을 끊자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정신이 휙 돌아왔다. 문제는 운이 좋지 않은 분이었다는 것. 혈전으로 추측되는 것이 우측 하지의 혈관을 막은 모양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무릎 아래로 까맣게 변하면서 마치 노점상의 건어물처럼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자신의 목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그곳으로 숨을 쉬고 있었고 2주 동안 부동자세였기에 사지에 힘도 잘 들어가지 않아 움직임이 문어처럼 더디기만 했다. 무엇보다 한 쪽 다리가 썩어가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세상 어느 누가 지금의 상황을 '아, 그렇구나. 폐암이었으니 하루 아침에 이럴 수 있어. 그렇지. 세상 일이 그렇지, 뭐'하며 헛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나였다면 대여섯 번은 탈관했을 것이다. 온 몸에 억제대를 두르고 의료진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간호사들이 가장 대하기 싫은 환자 1순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침착했다. 아픈 다리를 만질 때를 제외하고는 아픈 곳도 없다고 했다. 덥긴 한데 아이스 팩 같은 것은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두었으면 했고, 배가 꾸르륵 꾸르륵 하다고도 했다. 이 모든 것을 고갯짓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내었다. 표면적으론 무척 점잖은 환자였다. 직업적으로부터가 아닌 인간적으로 잘해 드리고픈 타입이었다. 다만 언뜻 비치는 얼굴의 그늘이 짐짓 마음에 걸렸다. 어쩌면 어머니가 겹쳐서 그랬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역시 그 환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7일 만에 대변도 시원하게 보았고 비록 땀을 흘리며 힘들어 하긴 했지만 인공호흡기 이탈 연습도 나름대로 잘 되었다. 어쨌든 나아지고 있었다. 어제보다 시큰둥한 기운이었지만 그래도 잘 응해주었다. 이런 저런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지금처럼 불편한 상태로 누워 있어서 기분이 안 좋으시겠다고 애 둘렀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접착제로 고정한 듯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십 여 초 동안 너무나 나를 빤히 바라보아서 무슨 말실수를 했나 싶었다. 하지만 어쩐지 피하고 싶지 않았다.

툭, 하고 약간 노래진 흰자위 사이를 비집고 눈물이 굴러 나왔다. 분명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회한과 정념의 덩어리랄까. 그런 느낌의 농축액 같아 보였다. 2주의 시간이 담겨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환자는 세상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던 부재의 시간이었으니까. 좋아지고 있다고 믿었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었다. 비록 암 환자였지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암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다. 어줍잖은 위로로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보드라운 티슈로 액체를 닦아 드리고 조용히 침대를 떠나야 함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새로 주문했다. 내일 쯤 올 것 같다. 백업해 둔 데이터를 그대로 뒤집어 쓰면 원래 쓰던 그대로 쓸 수 있다.음악을 틀어 두고 샤워를 다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폰을 두는 장소는 변하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변기 뚜껑을 닫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그리고 꽤 커다란 지출이었지만 어쩐지 아깝지 않았다. 폰이야 사면 되고 백업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복원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까짓 폰 쯤이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샤워하다 미처 마치지 못한 노래를 마저 듣고 싶다. 물줄기처럼 흥얼대겠지.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오늘도 그 환자를 대하겠지. 어제보다는 나은 기분이길. 적어도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일이 그녀의 인생에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좋은 글

CSICU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밥도둑이잖아요. 알이 꽉 찬 간장게장,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저도 무척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릴 텐데, 시를 읽고 난 2분 뒤 여러분은 간장게장을 못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정말 더는 먹지 않습니다. 못 먹겠어요. 들어보세요.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럼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여러분, 이 시를 읽기 전에 꽃게를 몰랐습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수없이 먹어봤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시선으로 꽃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똑 같은 꽃게를 보고도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 눈으로 보는 것, 見(견)이 누구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이달의 논문

박성종 교수 (PICU)

Factors Associated With Mortality in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for Pediatric Patients With Acute Kidney Injury

Choi, Seung Jun MD; Ha, Eun-Ju MSc; Jhang, Won Kyoung MD, PhD; Park, Seong Jong MD, PhD

Pediatr Crit Care Med. 2017 Feb;18(2):e56-e61

이번에 소개할 저희 논문은 소아중환자실에서 AKI로 CRRT를 적용받은 환아들의 사망률과 관련된 인자들을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내용의 논문들은 성인에서는 물론 소아에서도 여러번 나왔었던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사망률은 40.6%였고 생존군과 비생존군과의 비교에서는 Pediatric Risk of Mortality III score, Vasoactive-Inotropic score, CRRT 적용전 24시간동안의 fluid overload, need for mechanical ventilation 등의 소견과 검사상 acidosis, elevated lactic acid 와 blood urea nitrogen, 그리고 lower serum creatinine level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multivariate analysis에선 Vasoactive-Inotropic Score, need for mechanical ventilation, 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level이 사망률과 의미있는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의 특이점은 낮은 creatinine level이 사망률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낮은 creatinine level이 fluid overload와 연관이 있다는 점과 낮은 creatinine level이 CRRT 적용 시점이 지연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creatinine level이 상승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CRRT의 적용이 지연되고 fluid overload를 악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줍니다.

유익한 생활 정보

#가을의 #핫플레이스 #이태원 맛집

정기재 간호사(SICU1)

My SKY

"홍석천이 최근에 오픈한 분위기 좋은 이태원 루프탑 바"

위치 - 녹사평역 2번출구 맞은 편 우체국 옆건물 5층

가격 - 2만원~3만원(음료는 5천~1만원)

PIZZA COMPANY

"이태원에서 즐기는 피맥 파티!!! 루프탑에서는 영화도 즐길 수 있다."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34-19

가격- 1만원~2만원

상수 광흥창 대흥(서강대앞) 공덕 효창공원앞(용산구청) 삼각지 녹사평 이태원 한강진 버티고개 약수 청구 신당 동묘앞

젤렌

"분위기있는 불가리아 식당,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중인 미카엘쉐프가 운영하는 곳"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52, 6호선 이태원역에서 5분 이내 거리

가격- 1만 5천원~ 5만원

마이 첼시

"홍석천이 5번째로 오픈한 뉴욕 스타일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40

가격- 1만원~2만원

인기메뉴- 첼시 파스타, 고르곤졸라, 오너 스페셜 브런치